

중국 불후의 고전명작 (완역본)

홍루몽

HONG
LOU
MENG

초설근 고악저
안의운 김광렬 역

중국 불후의 고전명작 (원역본)

홍루몽

1

조선고금언문집
아리야고금언문집

홍루몽
조선고금언문집
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红楼梦. 1: 朝鲜文 / (清) 曹雪芹, (清) 高鹗著;
安义运, 金光烈译. —哈尔滨: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9. 4

ISBN 978-7-5389-1567-9

I. 红… II. ①曹…②高…③安…④金… III. 章回小说—
中国—清代一朝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42.4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09) 第 049203 号

本书根据人民文学出版社 2000 年 5 月
第 1 版翻译出版

- 书 名/ 红楼梦 (1-4)
著 者/ (清) 曹雪芹 (清) 高 鹗
译 者/ 安义运 金光烈
责任编辑/ 柳大植
责任校对/ 宋英爱 朴莲淑
封面设计/ 咸成镐
出版发行/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发行电话/ 0451-57364224
电子信箱/ hcxmz@126.com
印 刷/ 牡丹江新闻传媒印务有限公司
开 本/ 640mm×960mm 1/16
印 张/ 147.5
字 数/ 2410 千字
版 次/ 2009 年 5 月第 1 版
印 次/ 2009 年 5 月第 1 次印刷
书 号/ ISBN 978-7-5389-1567-9 (民文)
定 价/ 158.00 元 (共四册)

머 리 말

《홍루몽》은 중국 소설예술발전사상 한 시대를 결속지은 동시에 다른 한 시대를 열어놓은 작품이다. 이책의 저자 조설근(曹雪芹)은 톨스토이, 발자크, 디켄즈 등 세계적인 예술거장들보다 한세기를 앞서 세계문학의 고봉에 올랐다. 동시에 《홍루몽》은 또 전반 중국민족 문화와 밀접히 련계되어있어 사람들은 《홍루몽》을 말하면 자연히 중국민족문화를 련상하게 되고 중국민족문화를 말하면 자연히 《홍루몽》을 련상하게 된다.

그러나 중국 고대소설을 최고봉으로 끌어올린 조설근은 그의 생 전 및 사후에 결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고 상응한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가 쓴 《홍루몽》은 출판되자마자 독자들은 사람을 심취시키는 이 소설을 비싼 가격으로 다투어 샀고 “이야기를 하면서 《홍루몽》을 론하지 않는다면 천하의 시와 책을 다 읽었다 하더라도 헛된 공부이니라”(《京都竹枝词》)고 말할 정도로 인기가 절정에 달하였지만 저자에 관한 진실한 정황을 기술하는 사람은 매우 적었다. 본세기 20년대초에 이르러 호적(胡适)은 《홍루몽》의 저자가 조설근임을 고증하였다. 그후 또 학자들의 반세기에 걸치는 고증을 거쳐서야 우리는 《홍루몽》 저자의 정황에 대하여 그다지 상세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알수 있게 되었다.

조설근은 이름이 점(霑)이고 자는 몽원(梦阮), 호는 근포(芹圃), 근계(芹溪)로서 청조 강희(康熙) 말년(1715년?)에 출생하였다. 그의 선조는 본래 한족(汉族)인데 대략 명조 후기에 만주(满洲) 정백기(正白旗)에 편입되었고 그 신분은 “포의(包衣)”이다. 이런 “포의”가정은 황제에 대하여 말하면 노복에 불과하지만 그 신분만은 귀족에 속하였다. 조설근의 증조부 조새(曹玺)는 강녕(江宁) 직조(织造)를 담임하였고 증조모 손(孙)씨는 강희황제의 젖어멈으로 있었다. 조부 조인(曹寅)은 강희황제의 반독(伴读) 및 어전시위를 담임하다가 후에 강녕직조겸 량회(两淮) 순염(巡盐)어사를 담임하였는데 강희황제의 지

극한 충애를 받았었다. 조인이 죽은후 그 아들 조옹(曹顒), 조부(曹頌)는 선후로 강녕 직조를 계임(繼任)하였다. 이리하여 조손 3대에 걸쳐 선후 4명이 이 직무를 60년이나 담임하였다. 조설근은 어려서부터 바로 이런 “진회풍월(秦淮风月)”의 지역에서 변화하고 호화로운 환경속에서 자라났다.

옹정(雍正)황제가 즉위한후 조(曹)씨일가는 곧바로 황실 내부 투쟁의 치열한 소용돌이속에 휘말려들어가 일련의 타격을 받았는데 옹정 5년(1727년)에 조부는 죄명을 쓰고 파직되었고 이듬해에 가산을 몰수당하였다. 후에 조설근은 가문을 따라 북경에 돌아왔다. 조씨가 문은 이로부터 더는 부흥하지 못하였고 늦어도 1756년에 이르러 조설근은 이미 북경 서부 교외에 이주하였는데 “온집 식구가 죽으로 연명하고 술은 늘 외상으로 마시는”(敦誠《四松堂集·贈曹芹圃》) 빈곤한 처지가 되었다. 건륭(乾隆) 27년(1762년)에 이르러 조설근은 어린 아들이 요절하여 지나친 슬픔과 비통속에 잠겨있었는데 이해 설달 그믐날 밤(1763년 2월 12일)에 끝내 빈곤과 질병으로 병치료도 못하고 세상뜨고말았다.

그 친우들의 묘사에 의하면 조설근은 “몸이 뚱뚱하고 이마가 넓고 얼굴색이 검었다.”(裕瑞《粵窗閑筆》) 그는 성격이 오만하고도 대범하며 호방하였는데 술을 좋아하였다. 재능이 넘쳐나고 구변이 좋았으며 시와 그림에 능하였다. 동시대의 돈성(敦誠)은 그를 “시와 문장에 기이한 재주를 보여주었다”(《四松堂集·贈曹芹圃》), “시에 들어서면 담력이 일찍부터 무쇠처럼 강했다”(동상)고 평가하면서 그를 당조 시인 리하(李賀)에 비하였다. 그러나 그의 시는 돈성(敦誠)의 《비파행전기(琵琶行傳奇)》에 겨우 두 구절이 남아있을뿐이다. “백거이의 시혼(詩魂)이 흥에 겨워할적에는 험악한 녀귀들도 저승에서 춤판을 벌리리라.”

조설근은 불뚝 빼여지고 우뚝 솟은 바위를 그리기 좋아하였다 한다. 돈민(敦敏)은 《근포(芹圃)의 돌 그림에 씀》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만하고 강직한 기개는 군(君)을 닮아 세상에 드문데 겹겹이 우뚝 솟은 그 형상 더구나 각각이여라. 취한 뒤에 휘두르는 붓 홀륭하기 그지없어 가슴속의 쌓인 바위 그대로 그려내누나.” 이로부터 그가 바위를 즐겨 그리는건 가슴속에 맺힌 불평을 토로하려는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글들은 모두 단적으로 조선훈의 재질과 품모, 성격과 소양을 잘 묘사하고있다.

부귀영화로부터 빈한한 생활으로 전락한 조선훈의 개인적 불행은 그로 하여금 생활에 대하여 더욱 깊이 깨닫게 하였고 인생을 되돌아 보고 자신을 문화적으로 검토하게 하였는바 이는 그의 창작에 대하여 더욱 거대한 추진력으로 되었다.

《홍루몽》의 원명은 《석두기(石頭記)》이다. 1754년에 지연재(脂硯齋)가 재차 평론한 《석두기》에는 이미 “십년 로고가 심상치 않은데”, “십년을 교열하면서 5차 수정하였다.”는 설이 있다. 이로부터 추리하면 조선훈은 대략 1744년을 전후하여 생명의 피눈물을 가득 찍어 《홍루몽》을 창작하기 시작하였던것이다. 그러나 그는 “눈물이 다 말라 세상을 뜨기까지”도 전편을 완성하지 못하였고 근근히 완전하지 못한 80회를 세상에 남기고말았다. 지금 보는 《홍루몽》의 후 40회는 일반적으로 고악(高鹗)이 보충한것으로 인정되고있다. 고악은 자가란서(兰墅) 별호가 홍루외사(紅樓外史)로서 1795년에 진사 급제한 후 내각중서(內閣中書) 등 벼슬을 지냈다. 그가 《홍루몽》을 보충한 시기는 1791년 이전이다. 후 40회는 가능하게 원 저자의 일부 단편 재료에 근거하고 원 저작의 이야기 줄거리를 따라 보옥(寶玉)과 대옥(黛玉)의 애정 비극을 완성하여 전책의 전후를 원만히 마무리한것으로 추정된다. 후 40회의 보충 부분에 미타한 점들이 적지 않지만 원 저 80회의 강대하고도 엄밀한 시적론리와 미학적추세는 여전히 고악에 의하여 적지 않게 계승되었다. 그러므로 200여년의 《홍루몽》 전파 및 접수의 역사를 회고하여 볼 때 이는 의연히 기타 어느 저서의 보충부분보다 더욱 특색이 있고 잘된 보충서임을 증명하고있다.

《홍루몽》의 예술적경지는 상당히 매혹적이다. 그 사상 문화적깊이는 극히 심원하여 허다한 독자의 정신생활에 대하여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강렬한 영향을 주고있다. 중국소설사상 《홍루몽》처럼 이렇게 섬세하고 심각하게, 이렇듯 광활한 기백으로 전반 사회구조에 걸쳐 생활의 복잡함과 광범함을 반영한 작품은 아직 없다. 《홍루몽》은 바로 당시 전반사회(특히 상층사회) 면모의 축소이자 당시 사회 전반 정신문화(특히 귀족 및 지식인 계층의 정신문화)의 축소라고 해도 추호의 과장이 없을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홍루

몽》에 한부의 24사(史)가 응집되어있다고 감탄하는것이다.

그렇다, 《홍루몽》 자체는 바로 상당히 풍부하고 완전한 인간세계이며 절묘한 예술세계이다! 그러면서도 《홍루몽》은 또한 매우 리해하기 어려운 소설이다. 사실상 저자는 창작 사연에 대하여 이러한 시를 내놓았다.

페이지마다 황당한 이야기요

마디마다 쓰디쓴 눈물이라

사람마다 저자를 백치라 하지만

어느 누가 그중의 진맛을 알리오?

이 시는 이 책의 자체운명에 대한 예언으로 된 동시에 작품속에 극히 심각한 의미가 내포되었음을 독자에 알려주고있다.

만약 《홍루몽》을 간단히 사회정치사료나 저자 개인의 전기재료로 삼아 그속에서 이런것을 찾는것에 그치지 않고 인류의 심미적지혜의 위대한 독창성적인 체계로 간주한다면 반드시 《홍루몽》의 본문 심층에 되돌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오직 소설의 본문속에 들어가야만 저자가 주요한 정력을 한부의 사회력사비극 및 애정비극을 창작하는데 치중했음을 알수 있기때문이다.

이 비극의 주요무대는 바로 가부(贾府) 특히 대관원(大观园)속에 설치되어있다. 그러므로 사회력사에 대한 그 반영은 형상적이기도 하고 은폐적이기도 하다. 동시에 작품의 주인공 가보옥(贾宝玉), 림대옥(林黛玉), 설보채(薛宝钗), 왕희봉(王熙凤) 등 극히 아름답고 총명한 당세 인물들 및 그 운명, 특히 그들의 애정, 혼인의 갈등 및 이런 갈등을 둘러싸고 출현되는 일련의 각이한 차원의 인물들과 그 이야기는 시종 이 비극무대의 핵심을 차지하고있다.

그중 독자들을 가장 흡인하는것은 보옥과 대옥의 애정비극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정과련애에서 모두 반역자일뿐만아니라 한쌍의 반역자의련애이기때문이다. 이 점은 보옥과 대옥의 비극이 이중 비극, 즉 봉건레고 및 봉건혼인제도가 허용할수 없는 애정비극이자 상류사회 및 귀족가정이 허용할수 없는 반역자의 비극임을 결정지었다. 저자는 바로 이 이중비극을 한데 융합시켜 묘사하였으므로 그 의의가 더욱 넓게 되고 심각하게 된것이다.

《홍루몽》의 심각한 점은 또 작품이 가정모순과 사회모순을 결부시키고 심각한 사회모순의 내용을 가정모순에 부여한데 있다. 그러므로 《홍루몽》이 묘사한 가부(賈府)의 각종 모순 및 보옥, 대옥, 보채 등 허다한 인물들의 애정, 혼인의 충돌은 모종 의미에서 말하면 당시 사회의 각종 모순의 반영이라 할수 있다. 바로 이러하기때문에 소설의 시야가 일단 전반사회에로 돌려지자 당시사회의 정치의 암흑, 관청의 부패, 세상 기풍의 야박함, 인심의 쇠퇴가 불가피적으로 작품에 반영된것이다.

작품이 치중하여 묘사한 영국부(榮國府)는 하나의 투시경처럼 당시 사회의 축도가 응집되어있다. 이 봉건대가족 역시 그 자체가 기생하고있는 한창 성세로부터 쇠퇴에로 향하고있는 청조(淸朝)처럼 표면적으로는 화려한 장면을 유지하고있지만 “고층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추세는 이미 각 분야에서 감출수 없이 폭로되고있었다. 바로 이런 점들 역시 성세로부터 쇠퇴에 이르는 작품창작구성의 특점에 부합되고있다.

《홍루몽》은 첫 시작부터 전통적인 사상 및 수법을 타파하고 장편소설이란 문체를 참신한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소설의 미학적인 색채 및 전형적인 의미로부터 관찰할 경우 조설근은 감각형에 편중된 소설가이다. 심지어는 소설가로서의 조설근의 주요한 매력은 그가 활발하게 흘러가는 생활에 대하여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도 절묘한 예술적감각으로 포착하고 창작한데 있다고 말할수 있다. 또는 조설근 소설중의 사상정수가 그의 능동적인 예술감각속에, 생활의 격류속에서 현란할 정도로 급속히 회전하였는데 있다고도 말할수 있다.

《홍루몽》이 독자들앞에 펼쳐준 화면은 그야말로 심각한 지혜의 반짝임이고 천부적인 사고력의 움직임이며 칼날 같은 예리함이고 기상천외한 깨달음이며 신묘한 철리, 폭포나 번개와도 같은 정서의 움직임이다. 일종 천성과 천부적인 기질에 의하여 심미적선택으로부터 시작하여 조설근은 바로 미에 대한 발견 및 표현에 자각적으로 편중하였고 보다 시적으로 생활을 관찰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바로 이 점으로 인하여 그는 자체의 특색과 우세를 형성한것이다.

소설의 기초면에서 놓고 말하면 《홍루몽》은 아름답게 불타는 이상(理想)의 청춘남녀의 낭만적 선물이자 슬픈 강개가 차넘치는 추도

의 시라고 말할수도 있다. 《홍루몽》은 완곡하고도 함축성있게 썼는데 다차원적 지향의 몽롱한 시맛이 자욱하면서 그 속에는 그렇듯 많은 곤혹이 넘쳐흐르고있다. 사랑하면서도 미워하는 심리적정감의 갈등은 확실히 사람을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게 안개속과 같은 막연함속에 빠뜨린다. 동시에 소설은 또 한갈래의 암류를 형성하여 아름다운 인성과 아름다운 생활방식에 대하여 흐느끼며 하소연하듯 동경하면서 이를 뒤덮고있는 인생의 수평면을 돌파하려 했다. 그중 아름다운 인성 및 인정에 대한 추구, 특히 티없이 순결한 소녀의 인성미감, 이로 부터 발산되고 승화되는 시적인 경지가 바로 저자가 심미적으로 추구한 시적인 미의 문학인것이다.

예를 들면 《금릉(金陵)12채(钗)》의 정책(正册), 부책(副册), 우부책(又副册)에 드는 녀자는 무려 6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박명한 명부에 든 이런 부녀들은 모두 개성이 선명한 미의 형상들이다. 저자는 바로 그렇듯 훌륭한 필력으로 수많은 미인들을 하나하나 독자의 눈앞에 내놓았고 또 그들더러 대관원이란 이 인생의 큰 무대에서 마음껏 출연하게 한후 하나하나 론리에 알맞은 귀속을 배정하여 우리들에게 커다란 감명을 주는 비극적미와 미의 비극을 펼쳐주었던것이다.

구체적인 묘사에 들어가서 허다한 홍루몽 연구자들이 말하듯이 소설의 저자는 흔히 환경묘사를 인물성격묘사와 밀접히 융합시켜 인물의 개성 특징이 독특한 경지에 이르게 하였다. 환경은 성격을 묘사하는데 안받침하는 작용을 하는 외에 또 강렬한 감화력을 가지고있다. 저자는 인물의 개성특점, 행동, 심리활동 및 환경의 색채, 음성을 한데 융합시켜 정감과 경물이 융합된, 살아 숨쉬는 통일체를 구성하였다. 가장 뛰어난 수법으로는 물론 림대옥(林黛玉)을 둘러싼 “환경”과 “경물”의 개성화 창조이다. 중국 고전소설의 민족미학풍격은 《홍루몽》에 이르러 이미 선명한 개성, 내재적인 의미, 외부적 환경이 상호 융합, 침투되어 동일한 색조를 이루는 예술경지를 형성하였는데 이는 조선근의 문학모체에 의해 자양된것으로서 중국 전통의 고전문화를 아주 풍부히 하였다고 말할수 있게 되었다. 그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을 준것은 미학적, 철학적 내용 외에 우선 시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는 《홍루몽》을 시소설, 또는 소설시, 또는 시인의 소설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조금도 과장된 말이 아니다.

《홍루몽》이 증명하다싶이 조설근의 창작태도는 극히 엄숙하고 구상은 정밀하며 혼란한것 같으면서도 질서 분명하고 언어가 극히 세련되었다. 저자는 하나의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그에 대한 도덕적으로 심판을 내리는데에 만족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독자의 접수 여부에 대하여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는바 그가 진정 치중한것은 바로 자아표현이었다. 《홍루몽》은 바로 저자가 인생의 곤경과 내심의 외로움을 겪은후 표현한 생명에 대한 감탄인것이다. 그는 인생의 사회적의의와 시비선악에 대한 평판에 치우친것은 물론, 더우기는 생명의 상황과 묘미에 대해 치중하여 흠상하고있다. 그가 작품에서 심혈을 기울여 보여준 내용은 주인공들 및 각종 인물들의 굴곡적인 인생행로와 그들의 모든 쓰고 단것에 대한 감수와 체험이다. 우리의 독자들은 절대 이런 시각 및 시점에서의 새로운 파악, 정밀한 선택의 가치를 홀시하거나 과소 평가하여서는 안된다. 력사와 사회와 인생을 쓰는데로부터 인생의 묘미를 고집스레 흠상한 이 점은 바로 더욱 넓고 깊은 의미에서 인성 및 인간의 심령을 표현하였다고 할수 있기때문이다.

《홍루몽》이 사람들에게 접수된 력사를 고찰하여 볼 때 인생의 상황과 묘미를 체험하고 표현한것이 바로 이 위대한 소설의 예술적매력의 초점이며 소설이 사람들과 가장 쉬이 소통하고 가장 광범위하게 이야기될수 있는 화제라 할수 있다. 독자들은 소설중 인생의 뒤틀림과 모순적명제에 직면하여 주인공으로부터 자신에 이르는 진동을 감내하게 된다. 심령의 이러한 전률과 진동은 의심할바 없이 《홍루몽》이 추구하는 가장 훌륭한 효과이다. 왜냐하면 독자에 대하여 말할 경우, 자신에 속하지 않는 생활의 흐름과 생명체험을 엿보는것은 호기심에서만 기인되는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소설의 세계를 통하여 천만가지의 특이한 심령세계를 알게 되고 인생의 각종 상황과 묘미를 맛볼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소설 발전사의 차원에서 말할 때 소설이 력사와 인생을 쓰는데로부터 인생의 상황과 묘미를 쓰게된것은 결코 《홍루몽》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치의 보편성을 증강한것으로 된다. 협애한 공리성에서 벗어나 인류적 보편성을 지닌 소설은 오늘날에 와서도 여전히 거대한 생명적의의와 그 매력을 가지고있는데 이것이 바로 《홍루몽》이 그 이전의 기타 소설과 전혀 다른 점이라 할수 있는것이다.

인민문학출판사가 출판한 《홍루몽》 주해판본은 최초로 1953년 (작가출판사의 명의로 출판)에 “정을본(程乙本)”을 모본으로 유평백(俞平伯), 화수심(华粹深), 계공(启功)[후에 또 리정방(李鼎芳)이 참가함] 등 선생들이 주해를 달았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계공선생은 새롭게 주해를 달아 출판하였다. 이번의 출판은 유평백선생이 주해를 단 《홍루몽80회교정본》(후 40회를 부록함)을 모본으로 여전히 계공선생의 주석을 채납하면서 약간의 수정을 하였다.

《홍루몽》 주해판본을 출판하기전에 “머리말”을 써달라는 출판사의 위탁을 받아 심히 영광으로 느끼며 시험삼아 이상과 같이 썼는바 독자들의 많은 지적을 바라는바이다.

1998년 3월 2일

소

류대식 역

차 례

- 제 1 회 진사은은 꿈길에서 기이한 옥을 알아보고
가우촌은 속세에서 꽃다운 녀인을 그리다 /1
- 제 2 회 가부인은 양주성에서 황천길에 오르고
랭자흥은 객주집에서 영국부를 의논하다 /24
- 제 3 회 림여해는 가우촌을 천거하여 은혜에 보답하고
대부인은 외손녀를 맞아들여 가궁히 여기다 /39
- 제 4 회 기구한 녀인이 하필이면 박명한 사내를 만나고
호로묘의 중이 되는데로 엉터리판결을 내리다 /62
- 제 5 회 태허환경에서 노닐며 십이채글을 보게 되고
신선주를 마시며 흥루몽곡을 흠상하다 /78
- 제 6 회 가보옥은 뜻밖에 운우의 정을 체험하고
류로파는 처음으로 영국부에 찾아가다 /107
- 제 7 회 궁화를 전하면서 가련은 희봉을 놀리고
녕국부의 연회에서 보옥은 진종을 만나보다 /127
- 제 8 회 금쇄와 통령옥을 서로 보여주고
보채를 방문하여 대옥은 시샘을 하다 /146
- 제 9 회 풍류의 정을 못 잊어 벗을 가숙에 끌어들이고
소소리패들의 미움을 사서 학당에서 소란이 일다 /166
- 제 10 회 김과부 물욕에 눈이 어두워 모욕을 달게 받고
장태의 병을 론하며 병근을 간간히 파고들다 /182
- 제 11 회 생일을 축하하여 녕국부에서 잔치를 차리고
희봉을 만나본 가서는 음탕한 마음이 일다 /194
- 제 12 회 왕희봉은 모질게도 상사계를 꾸며내고
가천상은 부질없이 풍월감정면을 비취보다 /210

- 제 13회 진가경이 죽어 가용이 룡금위를 봉받고
왕희봉이 녕국부로 나가 집안일을 도와준다 /223
- 제 14회 림여해는 양주성 관소에서 세상을 뜨고
가보옥은 장례길에서 북정왕께 배알하다 /238
- 제 15회 왕희봉은 철함사에서 권세를 부리고
진경경은 만두암에서 재미를 보다 /254
- 제 16회 가원춘은 봉조궁의 귀비로 발탁되고
진경경은 요절하여 황천길에 오르다 /270
- 제 17,18회 대관원에서 편액글을 짓게 하여 재주를 시험하고
영국부에서 성친을 맞아 대보름을 크게 쇠다 /290
- 제 19회 아늑한 달밤에 꽃은 애뜻한 정을 토로하고
고요한 한낮에 옥은 그윽한 향기를 풍기다 /339
- 제 20회 왕희봉은 바른 말로 시기하는이를 나무라고
림대옥은 묘한 말로 아양떠는이를 놀려준다 /364
- 제 21회 현숙한 습인은 깔끔히 보옥을 훈계하고
령리한 평아는 어물쩍 가련을 구해준다 /379
- 제 22회 보옥은 노래의 가사에서 불교의 진리를 깨닫고
가정은 수수께끼놀음에서 불길한 징조에 슬퍼지다 /396
- 제 23회 서상기의 글귀가 연극의 대사와 뜻이 통하고
모란정의 노래소리 애뜻한 심정을 놀래우다 /418
- 제 24회 취한 금강 재물을 경히 여겨 의협심을 보여주고
들뜬 소녀는 손수건을 잃고 사랑에 빠지다 /434
- 제 25회 희봉이와 보옥이 마술에 걸려 다섯 귀신 만나고
홍루몽의 통령옥이 두 진인에게 보여지다 /455
- 제 26회 봉요교에서 말을 건네여 애뜻한 마음 토로하고
소상관에서 봄잠에 취해 그윽한 정을 나타내다 /477
- 제 27회 양귀비는 적취정에서 범나비를 희롱하고
조비연은 꽃무덤에서 지는 꽃을 슬퍼하다 /497

- 제 28 회** 장옥함은 정깊게 비단띠를 선물하고
설보채는 부끄러며 홍사주를 넘겨주다 /514
- 제 29 회** 다복한이는 복이 많아 수복을 받고
치정의 아가씨 정이 깊어 정을 앓다 /541
- 제 30 회** 보채는 부채를 빌어 두 쪽을 쏘아주고
령관의 “장”자 국외인을 미혹시키다 /563

제 1 회

진사은은 꿈길에서 기이한 옥을 알아보고

가우촌은 속세에서 꽃다운 여인을 그리다¹⁾

이야기의 첫머리에 먼저 말해두거니와 작자는 허무한 꿈길을 더듬고나서 일부러 진짜 사실은 감추고 “령기가 통한 돌의 이야기”를 빌어 이 《석두기(石頭記)》를 지었다. 그래서 “진사은(甄士隱)”이라고 한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섞여진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의 무슨 이야기냐고 묻는다면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있다-

한평생 세속에 불쫓기며 분주히 지내었건만 이루어놓은 일이란 하나도 없다. 문득 지난날 함께 노닐던 아녀자들에게 생각이 미치여 그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니 그들의 언행이나 식견이 죄다 나보다 월등하지 않은가. 내 당당한 남자로 태어나 어찌하여 치마 두른 아녀자들만 못했단 말인가?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실로 어찌할수 없는 노릇이다. 내 오늘 짐짓 붓을 들어 지난날 하느님과 조상의 은덕을 입어 명주비단으로 몸을 감고 산해진미로 배불리던 그 시절에 부모와 동기들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스승과 벗들의 충고를 듣지 않아 덧없는 반생을 헛되이 보내다보니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다할 아무런 일도 해놓지 못한 이 허물을 이제 이야기로 엮어 세상사람들 앞에 내놓으려 하는바이다. 나의 허물은 씻을 길이 바이었다 할지라도 흥허물을 덮어감추려는 나

1) 한어에서 “진사은(甄士隱)”은 진짜 사실을 숨긴다는 말과 음이 같으며 “가우촌(賈雨村)”은 가짜 이야기를 남긴다는 말과 음이 같다. 작자는 진사은과 가우촌이란 두 이름을 빌어 이 책을 지을 때 진짜 사실은 숨기고 가짜 이야기를 남겼음을 암시하였다.

의 불찰로 하여 규방속의 재간 많은 아녀자들의 존재가 매몰되어서는 절대 안되겠다. 그래서인지 루추한 오막살이에 몸을 두고 웅색한 나날을 보내는 처지요, 아늑한 자연의 꽃밭속에 묻혀있는 몸이언만 한 번 사려먹은 뜻을 버릴수가 없고 한번 내여든 붓을 놓을수가 없다. 내 비록 학문이 짧아 글을 지을만한 위인은 못되나 향간의 속된 말로라도 두루 이야기를 엮어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려 한다. 그래서 “가우촌(賈雨村)”이라고 한것이다.

이것이 제1회 제목의 참뜻이다. 첫시작부터 “속세에서 꽃다운 여인을 그리다”라고 한것은 작자가 지난날의 규방아녀자들을 쓰자는것이 결코 세상을 욕하려는것이 아니다. 간혹 세태가 비치는 일이 있기는 하나 이야기를 엮어나가는가운데서 부득히 서술하게 된것이고 작가의 본의가 아니니 명기하기 바란다. 시에 이르기를-

군생은 생을 위해 모두 드바쁘고
화려한 연회석상도 끝날 날이 있으리
천만가지 희비는 물거품과 같고
고금의 꿈은 모두가 황당한것이어라
비웃는 말에 붉은 소매 눈물에 젖고
치정에 빠진 사람 크나큰 한 품기도 해라
글자마다 스민것이 모두 피눈물이니
십년로고 어이 심상타 하라.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생겨난것인가? 이제 그 근원을 말하게 되면 모름지기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하겠지만 다시 그것을 차근차근 따져보면 과히 흥미가 없지 않을것이니 먼저 이야기의 유래부터 밝혀서 독자들의 의혹을 풀어주리라.

멀고먼 옛날, 아득한 태고적이니 녀와씨(女媧氏)가 돌을 녹여서 하늘을 깐던 때의 일이다.¹⁾

1) 녀와씨(女媧氏)가 돌을 녹여서 하늘을 깐던 때의 일: 녀와는 전설에 나오는 옛날 여황의 이름이다. 옛날에 공공(共工)이 황제가 되려고 축융(祝融)과 싸우다가 노하여 불주산(不周山)을 떠받치는 바위에 하늘을 버티고있던 기둥이 부러지고 하늘에 큰 구멍이 생겼다. 하늘이 서북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해와 달과 별들이 자리를 옮겨앉게 되었고 땅의 동남쪽이 꺼지면서 물과 먼지가 동남쪽으로 흐르게 되었는데 녀와는 거부기의 다리를 잘라 기둥을 세우고 오색돌을 녹여서 하늘을 기웠다는 신화가 있다.

대황산(大荒山) 무계애(无稽崖)라는 곳에서 높이 일백이십척, 둘레 이백사십척이나 되는 큰 돌을 삼만륙천오백한개를 만들었다. 나와씨는 그중에서 삼만륙천오백개만 쓰고 한개가 남은것을 청경봉(青埂峰)아래에 버려두었다.

그런데 그 돌은 나와씨의 손길을 거친 뒤부터 령기(灵气)가 통하여 마음대로 걸어나다니기도 하고 큰 바위나 작은 옥으로 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돌들은 모두 하늘을 깎는 거룩한 존재로 빛을 내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재간이 모자라 버림받은것을 생각하니 여간만 억울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였다. 그래서 이 돌은 늘 울적한 심화를 누를길이 없었고 마냥 눈물과 한숨으로 날을 보내였다.

그러던 어느날, 이날도 돌은 자기의 기구한 신세를 한탄하고있는데 문득 저쪽으로부터 웬 중과 도사가 다가왔다. 얼핏 보기에 자못 키골이 장대하고 풍채가 림름하였다. 그들은 청경봉밑에 이르러 그 돌 옆에 걸터앉더니 다리를 쉬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던중에 그들은 티없이 맑고 아름다운 옥을 발견하고 그것을 집어 부채꼭지에 쥔수도 있고 허리띠에 찰수도 있으며 손바닥에 굴릴수도 있게 줄이였다. 중은 그 옥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굴리면서 웃었다.

“이래놓고보니 생김새만은 보물 같아보인다만 별로 쓸모가 없으니 내 이제 한손 더 보아서 그럴만한 글자라도 몇자 새겨놓아 누구나 보면 령물인줄을 알도록 해주지. 그래야 자네를 저 번영하고 창성한 나라, 학문의 향기질은 고귀한 가문, 울긋불긋 꽃동산에 뒤덮인 변화한 땅, 인심이 후하고 부유한 고장으로 데려다가 분에 맞는 향락을 누리게 하는데도 편리할테니까.”

옥은 이 말을 듣고 좋아서 어쩔줄을 몰라하며 중에게 물었다.

“스님께서 저에게 누리게 해준다는 향락은 어떤 향락이며 데려다 준다는 곳은 어떤 곳인지 똑똑히 알려줄수 없는지요? 그러면 저도 궁금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허허, 안 듣는게 맛이야. 때가 되면 자연 알게 될테니까.”

중은 옥을 소매안에 넣고나서 도사와 함께 표연히 사라졌다. 그들이 과연 어디를 바라고 갔는지는 알길이 바이없다...

그 뒤로 몇세(世)기가 지나고 또 몇겁(劫)¹⁾이 지났는지 모른다.

1) 겁(劫): 불교학설에 의하면 우주는 생겨났다가 다시 해멸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